



시민공론화위원회_15차

✓ **보도일시**

2020. 12. 8.(화)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	
위 원 장	이 양 재 (☎ 010-5029-5455)
간 사	이 정 현 (☎ 010-3689-4342)
시민의숲1963추진단장	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
총 매 수	2매
사 진 유 ☐ 무 ☒	영 상 유 ☐ 무 ☒

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추진을 위한

12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...향후 일정은 재검토

- 시민공론화위원회, 7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시민 공론조사 진행 상황 등 논의
- 전주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1차 결과, 시민참여단(120명) 선정
-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토론회 일정 재논의

-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 시민공론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전주시민을 대표해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120명의 시민참여단이 꾸려졌다.
-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(위원장 이양재, 이하 위원회)는 7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120명의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 및 숙의토론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.
- 현재 공론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(주)메트릭스리서치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주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기본 지식과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등을 조사했다. 그 결과 지역별·성별·연령별 기준을 토대로 시민참여단 참여자 120명을 꾸리고, 이 중 일부가 불참할 경우에 대비해 70여명의 추가 인원을 확보했다.
- 위원회는 공론조사(안)와 관련해서는 11월 7일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도출된 3가지 시나리오(안)에 대해 각 시나리오별 지지 정도와 공간 구성 비율, 교통 및 상권에 대한 영향, 계획이득 환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
- 3가지 시나리오는 △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△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△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 등이다.

- 위원회는 120명의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공론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. 이렇게 나온 결정(안)은 전주시에 권고안으로 제출된다.
- 다만 이달 12일과 19일에 개최하려 했던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숙의토론회 일정은 재검토하기로 했다.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교육 및 토론회 방식과 장소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.
- 이양재 위원장은 “이번 공론조사 진행과 관련 중립적 위치에서 전주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, 더불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추세와 관련, 전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숙의 토론회 일정 및 개최방식 등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”고 밝혔다.
-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숲 1963추진단(063-281-2712, 2713)을 통해 알 수 있다.